

“니들이 폭탄주를 알아?”



| 김상우 / YTN 경제부 차장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나요.”
 폭탄주 마시는 이유 따로 있습니다.

폭탄주와 펠레야 펠 수 없는 집단, 아마도 그중에 한 곳이 아마 기자집단일 것입니다. 제 집 사람은 제가 자주 먹는 폭탄주를 말리는 것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 됐구요, 제 귀여운 두 딸만 아직도 “또, 술, 폭탄 또” 그러며 애원하다시피 “술 먹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술꾼들이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요, “술 먹고 싶어, 맥냐,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먹지” 저의 경우 정말 술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왜냐고요, 폭탄주가 돌아가는 자리는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 부처 장관과 폭탄주를 먹을 때 일입니다. 장관이 갑자기 출입기자들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한달 가까이 국내 언론에 거의 매일 나오던 골치아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문제의 총 책임자는 그 장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출입기자 역시 마찬가지로 속이 무척 시원했으니까요. 출입기자인 저 역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시각각 변하는 기사를 써야된다는 부담이 줄어드는 당연히 어깨가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폭탄주가 돌았습니다. 폭탄의 뇌관은 양주가 아니라 소주였습니다. 이른바 ‘노가다 부서’라고 불리는 곳이라 그런지 전통적으로 뇌관은 소주에 맥주를 넣었습니다. 폭탄주가 도는 곳이면 늘 그렇듯 3잔이 그 저녁식사 자리에 있던 장관, 고위직 공무원, 기자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골치아픈 문제가 풀린데

다, 폭탄주까지 먹었으니 평소 하지 못하던 얘기들이 툭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장관은 좀처럼 하기 힘든 자신의 신변에 관한 얘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언이었는데도 모릅니다. 상당수 기자들이 술에 취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술이 깨고 말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이어졌고, 장관은 더 털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장관의 그 얘기가 기사화됐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풀었다며 회포를 풀던 날, 골치 아픈 문제가 또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해당 장관은 임기중 기자들과 더 이상 폭탄주를 마시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일부 기자들은 그 기사로 인해 장관과 출입기자들간의 벽이 쌓여져 앞으로 장관이 더 이상 속내를 털어놓기 힘들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당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폭탄주와 얽힌 기사와는 정말 정도가 아주 약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중 일각인 얘가지요. 한국 역사의 큰 페이지를 장식했던 굵직굵직한 기사들 중에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때 폭탄주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주가 돌면 진실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내기 기자들에 대한 훈련중 하나는 폭탄주입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 새내기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인턴십을 받을 때 역시 폭탄주 세례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 대부분 처음 맛보는 폭탄주였을 테인데 그들은 이를 악물고 마셨습니다. 폭탄주에 얽힌 선배들의 일화를 들어가며.

폭탄주와 이래저래 20여년 가까이 살아온 언론사 부장도 폭탄주를 좋아서 마시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점심 때 취재원과 어쩔 수 없이 폭탄주를 많이 마시고 들어와 사내에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해당 부장이 술이 좋아서 마셨다기 보다 폭탄주를 돌리다 보면 터져 나오는 뭔가를 위해 한창 때 필드에서 취재할 때를

생각하며 새내기처럼 이를 악물고 마셨다고 봅니다. 술에 장사가 없다는데 폭탄주에 단련된 것도 아니고 20년간 몸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한지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저희 장인 어른은 아직도 저만 보면 기자 사위는 보지 말라고 옛부터 그랬다며, 아직도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다니냐고 야단치십니다. 저는 요즘은 안 그런다고 겉으로는 말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제가 마시고 싶어 마시나요' 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은 폭탄주를 마시지 않고는 얘기가 안되는 사회, 진실이 터져 나오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어쩔 수 없이 폭탄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도 와인 한잔만 마시고도 사랑을 고백하듯 진실을 고백하는 취재원을 진정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DIYK**

